| 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 | 보 도 자 료 |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|
|---|---|---|

**2020년 9월 1일(화) 국무회의 시작 시점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배포일시 | 2020. 8. 31. (오전) | 담당부서 | 기획재정담당관실 |
|---|---|---|---|
| 담당과장 | 이승렬 과장(044-203-5520) | 담 당 자 | 이동철 서기관(044-203-5516)<br>김아름 주무관(044-203-5517)<br>최영진 주무관(044-203-5518) |

# 내년도 산업부 예산 11조 1,592억원, 18% 확대 편성

◇ **소부장 및 시스템반도체·생명건강·미래차 관련 예산지원 흔들림없이 확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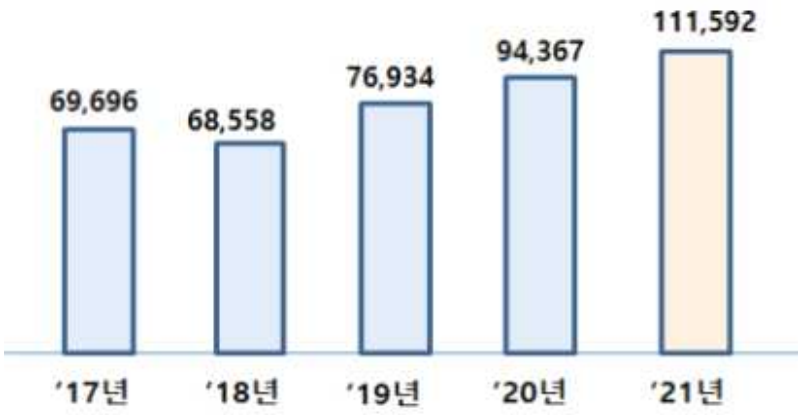
◇ **한국판 뉴딜에 따른 산업·에너지의 디지털화·친환경화 지원 강화**

◇ **무보기금 출연,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전용보조금 등 수출·투자활성화 예산 강화**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예산으로 **전년 대비 18% 증가한 11조 1,592억원을 편성**하여, 경제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① 미래형 산업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**제조업 경쟁력 제고**, ② **차질없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**, ③ **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**에 주안점을 두었다.

< 산업부 예산추이 및 분야별 금액(억원)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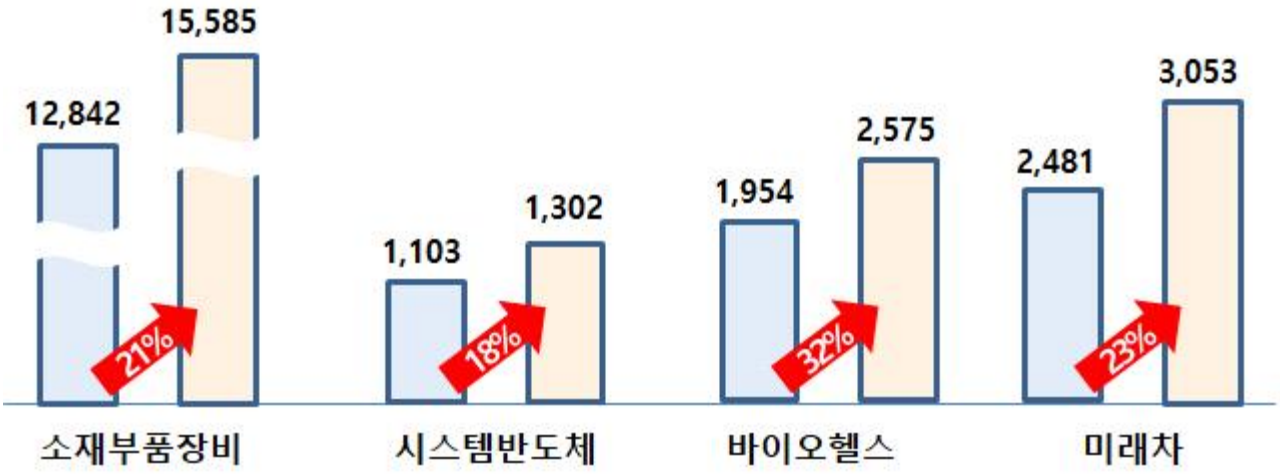

| 주요 분야 | '21년 예산 |
|---|---|
| 제조업경쟁력 제고 | 46,705 |
|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| 48,956 |
|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 | 14,224 |

## ❶ 산업강국을 위한 제조업 경쟁력 제고 지원

**('20년) 41,981억원 → (21년안) 46,705억원 (4,724억원, 11.3%↑)**

□ 소재·부품·장비, 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차 산업 등 **미래 먹거리 육성**과 함께, **제조업 전반의 디지털화 및 친환경화**를 촉진하고 우리산업의 허리인 **중견기업 육성**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.

< 주요산업별 예산반영현황 >




□ **(소재·부품·장비)**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**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흔들림없이 추진**해 나갈 예정이다. 산업부는 보다 적극적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 『소부장 2.0전략('20.7월)』을 발표한 바 있으며, **내년도 예산도 금년 대비 21% 증액**된 1조 5,585억원을 편성하였다. ('20년 산업부 소부장 예산: 1조 2,842억원)

▪ 정부 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: ('20년) 2조 725억원 → ('21년안) 2조 5,611억원

○ 대표적 연구개발 사업인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사업 예산을 50% 가까이 증액하는 한편, **소부장 관련 혁신생태계를 조성**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된다. 출연연 인력 등을 활용하여 **현장 전문기술인력 양성**을 지원하고, **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하여 기술협력**(예:기술도입, 지분투자, 제휴)을 촉진해 나가기 위한 지원 사업 등이 신설되었다.

▪ 소재부품기술개발(R&D) ('20년) 6,027억원 → ('21년안) 8,866억원
▪ 산업맞춤형 전문기술인력양성 ('21년안) 36억원
▪ 투자연계형 기술확보지원 ('21년안) 14억원

□ **(시스템반도체·바이오헬스·미래차 산업)**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도록 **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자동차 지원 예산**을 **대폭 증액**하고, **범부처가 긴밀히 협력**할 계획이다.

▪ 전년 대비 시스템반도체 18%, 바이오헬스 32%, 미래차 23% 증액 편성

○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해 **반도체 설계기업(펩리스) 육성부터 제품생산까지 전주기적 지원**을 강화할 계획이다. 또한 코로나를 계기로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과기부, 복지부 등과 함께 신약 및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**범부처 공동 연구개발예산**을 대폭 확대하였다. **자율주행·친환경차 개발**을 위한 연구개발 및 성능시험장 구축 예산도 증액되었다.

| | |
|---|---|
| (시스템반도체) | ■ 글로벌K-펩리스육성기술개발(R&D) ('21년안, 신규) 60억원 |
| (바이오) | ■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(R&D) ('20년) 302억원 → ('21년안) 602억원 |
| (미래차) | ■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(R&D) ('21년안, 신규) 200억원 |

□ **(디지털뉴딜)**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, **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**하고, 5세대 이동통신·인공지능 기반 **융합서비스 개발**을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. **자율주행차·자율운행선박·첨단제조로봇**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으며, **데이터 기반의 제조공정 혁신**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이 신설되었다. 최근 대표적 비대면 산업으로 떠오른 **유통산업의 디지털화**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도 신설한다.

○ 또한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**산단의 디지털화**를 위한 사업도 확대된다. **지능형 산단 대상**으로 첨단 통합관제 시스템·물류기반 등과 같은 **지능형 편의시설을 확충하고, 지능형 제조 관련 인력을 양성**하기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되었다.

▪ 자율운행선박기술개발 ('21년안, 신규) 120억원
▪ 지능형로봇보급및확산 ('20년) 381억원 → ('21년안) 497억원
▪ 산업지능화선도가치사슬육성(R&D) ('21년안, 신규) 76억원
▪ 산단 지능형편의시설 ('20년 추경) 90억원 → ('21년안) 285억원
▪ 산단 지능형제조고급인력양성 ('20년) 147억원 → ('21년안) 350억원

□ **(중견기업 육성)** **중견기업**은 대기업의 협력사이자 중소기업의 수요기업 역할을 하는 **우리 산업의 중요한 허리층**이며, **양질의 일자리를 창출**하는 경제의 버팀목이다. 이번 예산안을 통해 중견기업을 **규모 및 특성별로 분류하여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**을 실시하도록 관련 사업을 신설하는 등 중견기업 전용 프로그램 지원규모를 718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. ('20년 467억원)

-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(R&D) ('21년안, 신규) 124억원
- 강소벤처형중견기업육성(R&D) ('21년안, 신규) 15억원
-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(R&D) ('20년) 25억원 → ('21년안) 65억원

□ **(사업재편 지원)** 4차 산업혁명· 코로나19 확산 등 **산업 대전환기**를 맞아, 주력산업이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**선제적 사업재편에 과감히 도전**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예산을 확대한다. 사업재편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**사전 맞춤형 컨설팅과 승인기업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**이며, 특히 신산업에 진출하는 **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전용 연구개발 사업을 신설**하였다.

* 기업활력제고법 개정('19.8월)을 통해 사업재편 지원 기업 대상을 대폭 확대,
(기존) 과잉공급 기업 → (확대) 신산업 진출기업 + 산업위기지역 기업을 추가

- 사업재편 지원기반구축 ('20년) 17억원 → ('21년안) 40억원
- 신산업 진출 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 ('21년안, 신규) 100억원

## ❷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 그린뉴딜 관련 투자확대

**('20년) 38,571억원 → ('21년안) 48,956억원 (10,385억원, 26.9%↑)**

□ 저탄소·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**그린뉴딜 관련 투자를 획기적으로 강화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**(신재생에너지 확대)** 에너지 전환정책의 안착을 위해 **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금년 1조 2,226억원에서 1조 6,725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**한다.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 금융지원이 크게 강화된다. ① **농축산 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,** ② **산단 유휴부지 (공장 지붕, 주차장 등) 내 태양광 설비 융자,** ③ **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사업 투자금 융자 예산(주민참여 자금)** 등이 대폭 증액되었으며, ④ 기술력은 갖추었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**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(녹색보증) 예산**이 신설되었다.

▪ 농촌 태양광 융자: ('20년) 2,284억원 → ('21년안) 2,840억원
▪ 산단 태양광 융자: ('20년 추경) 1,000억원 → ('21년안) 2,000억원
▪ 주민참여자금 융자: ('20년 추경) 365억원 → ('21년안) 370억원
▪ 녹색보증: ('21년안, 신규) 500억원

○ 이외에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, **풍력 관련 예산지원도** 강화된다.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풍황정보 및 어업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해상풍력에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기 위한 **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예산을 확대**하고,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실증지원 등을 수행하는 **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구축 예산 등이 확대되었**다.

▪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개발 ('20년) 25억원 → ('21년안) 75억원
▪ 해상풍력산업지원 ('20년) 20억원 → ('21년안) 70억원
▪ 초대형 풍력실증기반구축 ('20년) 53억원 → ('21년안) 113억원

□ **(수소경제 활성화)** 에너지 분야의 대표적인 **미래먹거리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'21년 2,450억원으로 대폭 확대**된다.('20년 1,420원) **수소 생산·유통·진흥·안전관리 등 전 분야**에 걸쳐 예산투자가 확대되어, 수소 생산거점을 추가 확충하고, 수소 운송장비 구축·수소 전문기업 육성·수소충전소 관찰 등을 신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.

▪ 수소생산기지구축: ('20년) 299억원 → ('21년안) 566억원
▪ 수소유통기반구축 ('21년안, 신규) 36억원,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('21년안, 신규) 33억원
▪ 수소안전기반구축: ('20년 추경) 29억원 → ('21년안) 74억원

□ **(에너지신산업 창출)**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추진 중인 **지능형 전력망 관련**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. '20~'22년까지 추진하기로 한 아파트 500만호 대상 **지능형 전력계량기(AMI) 보급** 예산을 1,586억원으로 확대하였으며, 재생에너지 확산에 대비하여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발전기의 전력품질을 실시간 관찰하는 **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에너지저장장치(ESS) 구축**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다

▪ 가정용스마트전력기반 ('20년 추경) 282억원 → ('21년안) 1,586억원
▪ 재생에너지계통수용 확대 공공 ESS 구축: ('21년안, 신규) 131억원

□ **(지역 에너지 혁신역량 강화)**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이 확대된다.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 분야 중점산업을 선정하여, 관련 혁신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**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** 예산이 증액되었으며, **기초 지자체**들이 자율적으로 에너지전환·에너지절약 등을 위한 **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**하는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다.

- ▪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('20년) 42억원 → ('21년안) 67억원
- ▪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행지원 ('20년) 1억원 → ('21년안) 34억원

□ **(생활기반 개선)**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**전선·통신선의 공동지중화**를 '21~'25년까지 추진하기로 하고, 내년 예산으로 우선 200억원을 반영하였다. 또한 **42개 도서지역**의 전력공급환경 개선을 위해 **기존 디젤발전기의 재생에너지 설비로의 전환 또는 대기질 개선설비 확충** 등을 위해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.

- ▪ 전선로 지중화 지원('21년안, 신규) 200억원
- ▪ 농어촌전기공급사업 ('20년) 1,057억원 → ('21년안) 1,373억원

□ **(제조업의 친환경화)**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**우리 주력 제조업의 친환경화**가 반드시 필요한 바, 관련 예산을 78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. ('20년 427억원) **산단 내 청정사업장 구축, 화학규제 대응지원** 등 산업분야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는 예산을 보강하였으며, **이외에도 재제조·도시광산**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하였다.

- ▪ 산단 청정사업장 구축 ('20년 추경) 31억원 → ('21년안) 138억원
- ▪ 제조분야 친환경 관리기반 구축 ('21년안, 신규) 44억원
- ▪ 순환자원이용 희소금속회수 공통활용기술개발(R&D) ('21년안, 신규) 50억원 등

□ 한편 산업부는 **포항지진 관련 예산을 3,000억 내외로 편성**하여, 피해구제 및 관련부지의 안전한 복구 등을 위해서도 노력할 예정이다.

- ▪ 포항지진피해구제지원: ('21년안, 신규) 3,000억원
- ▪ 포항지열발전부지안전관리 : ('20년) 16억원 → ('21년안) 39억원

## ❸ 수출활력 회복 및 투자유치 확대

**('20년) 12,136억원 → ('21년안) 14,224억원 (2,087억원, 17.2%↑)**

□ 코로나19 확산,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**미증유의 수출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수출활력 회복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**하는 한편, 국제 가치사슬(GVC)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**투자유치 관련 지원**도 강화하였다.

□ **(수출지원 확대)**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사업 수주지원, 수출중소·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등을 위해 **무역보험기금 출연규모를 4,000억원으로 대폭 확대**하고,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를 제공하는 예산도 증액하였다. 또한 기업들의 무역관련 업무처리절차를 온라인화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강화하여, 수출기업들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한편 국내 전시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도권 전시공간 확충을 위해 **킨텍스 3단계(고양시) 건립에 내년부터 착수**하기로 하고, 200억원을 반영하였다.

- 무역보험기금출연 : ('20년) 2,960억원 → ('21년안) 4,000억원
- 수출지원기반활용(바우처): ('20년) 731억원 → ('21년안) 804억원
- 디지털무역기반구축 : ('20년) 33억원 → ('21년안) 70억원
- 킨텍스3단계건립 ('21년안, 신규) 200억원

□ **(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)**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에는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거점에 대한 세계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. 이에 따라 세계 첨단기업들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**현금지원 예산을 증액**하고,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고자 **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유턴기업 전용보조금 예산도 대폭 확대**하였다.

- 외투기업 현금지원: ('20년) 550억원 → ('21년안) 600억원
- 국내복귀투자보조: ('20년 추경) 200억원 → ('21년안) 500억원

□ **(무역안보 및 통상분쟁 대응)** 산업부는 국가적 무역안보 역량강화 및 일본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위해, **무역안보 전담조직을 신설**한 바 있으며('20.5), 관련 **예산 투자도 강화**할 계획이다. 전략물자 판정·관리 등 수출입통제 관련 예산 및 국가핵심기술의 불법 해외유출을 막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.

○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주요국들이 경기부진을 겪고 있어, 향후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, **통상분쟁·수입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일부 증액**하였다.

-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('20년) 84억원 → ('21년안) 99억원
-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('20년) 19억원 → ('21년안) 23억원
- 통상분쟁대응 ('20년) 233억원 → ('21년안) 250억원

□ 이상 산업부가 마련한 『**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**』은 **국회 심의**를 거쳐 **금년 12월초** 확정될 예정이다.
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 이동철 서기관(☎ 044-203-551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